

知性の 意味 限定

-혜-겔의 歷史哲學에 비추어⑤-

金後善

또 그것이 生命的 統一體이기 때문에 媒介的 行爲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行爲體는 單純한 思惟 作用도 아니고 單純한 自然物도 아니다. 四肢五體를 가지고 一定한 理念的 精神的인 것을 思惟 又は 志向할 뿐外라 一定한 現實的 身體的인 口境 乃至 地盤 우에서 生活하며 生活하는 實로 身體的 精神的 統一體로서의 具體的 人間이다. 要컨대 歷史的인 諸文化를 創造하는 媒介體란 如斯 人間이다.

이것이 卽 우에서 말한 歷史의 主體 文化의 主體이다. 이 主體는 이미 論 한바와 如히 一便으론 自己의 身體性에 依하여 歷史的 現實에 附着하고 一便으론 自己의 精神性에 依하여 歷史的 理念에 連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主體는 一便으로는 自己의 身體的 運命에 依하여 歷史的 身體에 노혀 있고 他便으론 自己의 精神的 資格에 依하여 歷史的 精神을 志向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歷史의 主體는 늘 歷史的 現實과 歷史的 理想(理念)을 『媒介 Vermitteln』 하는 『中間 Mittel』의 意味를 가진다. 大體 現實과 理想과의 乖離처럼 人間에게 苦惱를 주는 것은 업다. 모-든 人間的인 苦惱는 人間의 主體的인 『中間性』에 있다. 모-든 人間的인 悲劇의 起源도 여기에 있다. 勿論 苦惱는 悲慘하다. 그러타고 이것을 다만 否定的 無意味한 것이라고 나추 評價하는 것은 너무나 單純한 淺見이다.

吾人の 歷史哲學的 見解에 依하면 人間的 主體의 모-든 갑산 行動의 動機는 우에 말한 人間的 苦惱에 있다. 主體는 늘 『中間』的이기 때문에 애답고, 애답기 때문에 行爲하는 것이다. 애답은 것이 人間의 本質이라면 우리는 行爲를 떠나서 人間的 主體를 生覺할 수 업다. 人間은 本質的으로 애답고 主體는 根本的으로 行爲的이다. 이것을 좀 더 人間論的으로 理解해보자. 主體는 本質的으로 歷史的 現實과 歷史的 理念 『틈』에 있다. 現實과 理念은 主體에 對하여는 分裂된 兩極이다. 이 分裂된 兩極은 主體에 적지 안흔 憂愁와 不安

과 威脅을 준다. 主體는 이 不安과 威脅 가운데서 斷然한 決意를 하여야 한다. 모-든 決意는 힘찬 『情熱』(Leidenrodft)를 隨伴한다. 情熱 업는 決意는 要컨대 無意味한 空文字이다. 情熱가진 主體는 『苦惱』(애답음)(leiden)를 가지지 안홀 수 업다. 애답은 情熱的 決意는 分裂되여 相制치 못하는 歷史的 現實과 歷史的 理念을 媒介 統一하기 爲하여 애쓴다. 이것이 卽 主體의 主體性이며 主體의 歷史的이며 文化的인 行爲이다.

知識人의 文化的 良心이 늘 애답은것은 知識人은 누구보담도 歷史的, 文化的 現實과 그 理念(理想)은 分裂 又は 乖離를 잘알기 때문이다. 歷史的 諸文化는 主體의 情熱과 苦惱 업시는 生産되지못한다. 이것이 『苦惱』의 歷史的 哲學的 意味이다. 그러나 『苦惱』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文化的 良心과 意欲, 따라서 情熱을 가진 生産的, 建設的인 것도 있고, 아무 情熱도 업는 非生産的 消費的인 것도 있다.

우리가 요지음 우리의 社交와 會話를 통해서 맞는 苦痛의 一部 乃至 殆半은 後日에 屬하는 苦惱이다. 이것은 大概 厭世家나 虛無主義者의 것이다. 그 네가 말하는 것과 가티 이것도 人間의 『기폰 곳』에서 나오는 것일지는 몰으나 『넓이』에 空虛한 『넓이』 잇는 것과 가티 『기피』에도 空虛한 『기피』가 있다. 우리는 空虛한 『기피』에서 아모 신통한 것도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苦惱는 空虛한 敎養과 그릇된 認識에서 나오는 것이니, 歷史를爲하여 文化를 爲하여 憂慮할 傾向이라고 안이할 수 업다. 歷史的인 참된 苦惱는 歷史的 現實과 歷史的 理念의 현실적 分裂을 기피 『洞察』하고 이것을統一시키기 爲하여 애쓰는 『情熱的 主體』에만 잇는 것이다. 이런 主體에 依하여서만 참된 文化는 生産 되는 것이다.

그러타면 우리 過去의 善良, 眞美, 智慧가 여러 가지로 論議하여온 文化의 □□ □□ □□等의 事實的 乃至 現實的인 個性의 性格은 大體 어디에 原因하는가?